



여름에 접어들면서 역동적이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춤을 활용한 광고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파워풀한 퍼포먼스부터 코믹·복고댄스까지 다양한 춤이 등장한다. '태양의 마테차' CF에서 라틴음악에 맞춰 신나는 '마테댄스'를 선보이고 있는 걸그룹 씨스타. 사진제공 | 한국코카콜라

여행업계 '아웃바운드 시장' 강세

(국내→해외 여행)

메르스 여파로 인바운드 시장은 큰 타격 하나투어, 해외여행객 전년 대비 13%↑

의 불안심리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6월 넷째 주부터 회복세로 전환했고 6월 마지막 주부터는 일일 순예약자 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로 국내관광과 인바운드(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여행)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해외여행을 떠나는 아웃바운드 시장은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바운드 시장의 선두업체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6월 여행객 송출 현황을 보면 두 회사 모두 당초 예상치보다는 떨어지지만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하나투어의 경우 6월 해외여행 수요는 16만 4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13.0% 증가했다. 메르스의 여파로 예약률이 기대보다 조금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외여행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됐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여행객

지역별로 보면 일본, 동남아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미주와 유럽, 중국 여행객은 줄어들었다. 특히 일본은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57.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6월30일 기준으로 7월 해외여행수요가 12만 9000여명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고, 8월은 23.7%나 증가해 여름휴가와 방학시즌의 여행수요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했다.

모두투어도 6월 동안 8만9000명의 해외송객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4% 늘었다. 메르스 여파로 중국과 미주 지역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을 뿐 엔화와 개별여행의 급속한 성장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일본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남태평양 지역이 두 자리 수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힙합·라틴·코믹... 광고가 춤춘다

올 여름 유통업계 '댄스광고'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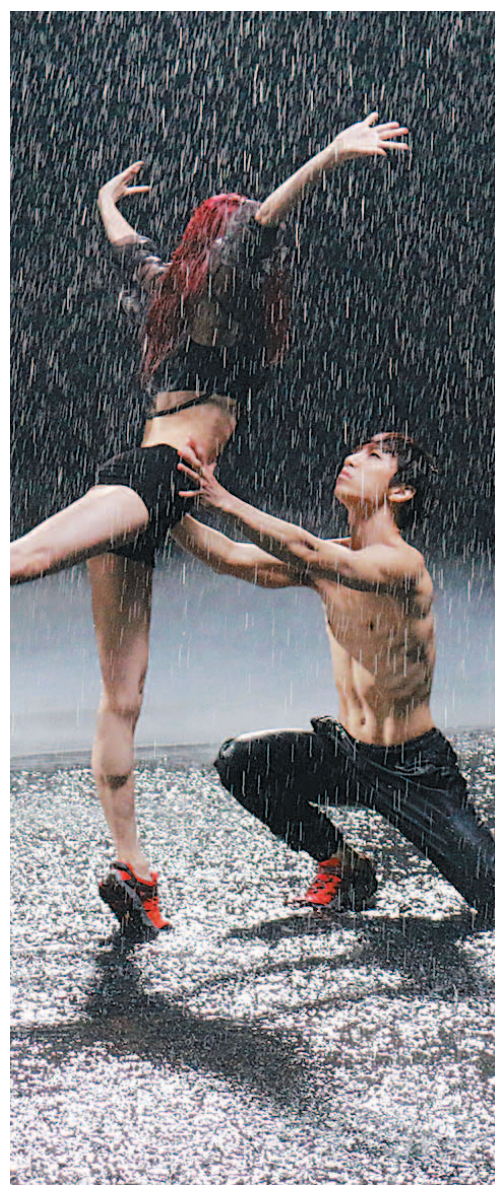
머펄, 하휘동·최수진 역동적 댄스 화제 르까프 '이서진 복고댄스' 90만뷰 기록 코카콜라 태양의 마테차 '씨스타' 기용

광고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메르스에 주눅 든 유통업체들이 춤으로 시름을 날린다"는 말도 들린다. 여름을 맞아 역동적이고 시원한 느낌에 재미까지 주는 춤 광고가 늘고 있다. 파워풀한 퍼포먼스부터 코믹댄스까지 춤도 다양하다. 댄스 광고를 통해 '4D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4D는 광고의 다양성(Diverse), 역동성(Dynamic), 소비자의 색다른 즐거움(Delight), 브랜드의 호감도(Desirability)를 의미한다.

● "예술이야, 광고야?" 라틴·복고댄스부터 패러디댄스까지

글로벌 아웃도어브랜드 머펄은 Mnet의 인기 프로그램 '댄싱9'의 정예멤버인 하휘동과 최수진을 기용한 댄스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사막과 호수를 배경으로 마치 모래와 물 위에서 노니는 듯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은 트레킹화 '올아웃 에어로'다.

'아이유신발'로 인기가 높은 신발 브랜드 스베누는 걸그룹 AOA와 함께 한 아쿠아슈즈 '스플래시' CF를 공개했다. AOA는 역동적인 음악에 맞춰 물 위에서 걸스킵, 워킹 등을 선



▲머펄 '올아웃 에어로' 광고 영상

보이며 물에 강한 아쿠아슈즈의 특징을 다이나믹하게 그려냈다. 공중에서 날리는 물들이 시원한 '눈맛'을 더해준다.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브랜드 르까프는 모델 이서진이 출연한 CF '추억의 광고대전' 바이럴 영상으로 주목받았다. '젊음의 리듬' 편에서 이서진은 훈남 미대생으로 변신해 복고댄스를 선보였다. 이서진이 착용한 신발은 레드 콘셉트의 '헤리온 1986'이다. 유튜브 30만 뷰 등 SNS에서 90만뷰를 기록한 인기 영상이자.

한국코카콜라는 제로 칼로리 음료 '태양의 마테차' 모델로 걸그룹 씨스타를 기용했다. 광고영상에서 씨스타 멤버들은 흥겨운 리듬의 라틴음악에 맞춰 뮤직비디오를 방불케 하는 댄스를 보여준다. 영상 막바지에서는 태양을 형상화한 붉은 라틴댄스 복장을 입고 등장해 신나는 댄스퍼포먼스를 연출한다.

광동제약의 '비타500' 힐링광고는 비타민 드링크의 특징을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타500을 마시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즐긴다는 설정의 영상에서 가수 수지는 깜찍한 댄스실력을 과시했다. '차두리 키위'로 알려진 키위 브랜드 '진폴드'의 광고에서는 차두리가 그동안 감춰두었던 코믹한 연기와 댄스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밖에도 페이나우(Paynow) 광고에서는 3초 안에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황승언이 코믹한 3초 댄스로 전달해 웃음을 자아냈다. 핫딜가격비교 쿠팡은 신동엽이 호랑나비 댄스를 패러디한 쿠팡댄스를 선보였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서울 APT 3.3m²당 평균 매매가 1700만원 돌파

재건축 사업환경 개선 따른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m²당 1700만원을 회복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2년 9월 1700만원 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1600만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6월 1700만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값 1700만원 고지 탈환에는 강남구(8.81%), 서초구(8.43%), 강동구(6.12%), 송파구(6.03%) 등 강남4구가 선두에 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사업 환경이 개선되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의 최대 수혜지역인 양천구(5.28%), 노원구(4.69%) 아파트 가격도 올랐다. 중소형 저가 아파트가 많은 중구(3.48%), 성북구(3.30%), 도봉구(3.21%) 등 강북지역도 서울 아파트값 회복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저금리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종이판다 1800마리, 석촌호수 온다

30일까지 메인 전시...분양 신청도 접수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은 3일부터 30일까지 롯데월드몰 잔디정원과 석촌호수 일대에서 '1600 판다+' (사진) 메인 전시를 진행한다.

'1600 판다+'는 세계자연기금(WWF)과 프랑스 조각가 파울로 그랑종이 손을 잡고 2008년부터 재활용 종이를 이용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야생 판다의 개체 수 1600마리만큼의 판다를 제작해 세계 각국을 돌며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동안 늘어난 판다 개체수를 감안해 아기 판다 200마리가 포함된 총 1800개의 판다인형을 상설 전시한다.

전시한 판다는 1일부터 14일까지 '1600 판다+' 홈페이지(www.1600pandas.kr)를 통해



분양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개인에게 분양한다. 수익금 전액은 WWF에 환경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Made in Japan

비거리의 帝王! (제왕)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스윙스피드를 더욱 빨라지게 하며 더 큰 비거리를 제공!

V10 남성용

V10 여성용

O/B 없이 시원스럽게 폭풍 뱀어나가는 드라이버샷 라인업에 빅 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구력이 늘면 볼수를 욕심내는 비거리에 대한 욕망만큼은 벌써 3000야드에 가 있지만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O/B가 입부. 조금 걸거나 힘 있는 동반자와 라운딩 할 때는 자존심마저 구겨진다. 하지만 아마 골퍼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 압도적인 비거리(O/B)를 자랑하는 일본 지브이투어 'V10' 비공인 드라이버가 고민을 말끔하게 날려 버릴 것이다.

압도적인 비거리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드라이버 출시!!

비거리 중심으로 설계된 지브이투어 "V10" 비공인 드라이버

높아진 관성모멘트와 공기역학적 설계 "V10" 드라이버는 페이스 측의 무게를 뒤로 이동시켜 저중심설계를 실현함으로써 저스핀, 고티도 효과를 발휘해 관성모멘트를 극대화 했다. 높아진 관성모멘트로 임팩트 시 볼이 중심에 맞지 않더라도 헤드 무게가 적어 비거리와 방향성 손실이 적다. 유선형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스윙하는 동안 모든 각도에서의 공기마찰을 최소화하여 관용성이 극대화 되어 폭발적인 비거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지브이투어의 더욱 향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개발된 "V10" 오직 거리와 방향성만을 우선순위로 개발된 "V10" 드라이버는 반발력을 극대화시키는 베타탄탄 페이스를 채용하여 여유 중량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미스샷은 줄이고 직진성은 향상시켜 탁월한 비거리와 방향성으로 프로 못지않은 샷구현이 가능하다.

볼을 무시한 초박형 샬로우페이스 지브이투어 V10 모델은 반발계수 0.87의 협회 볼을 무시한 비공인 드라이버이다. 초박형 샬로우페이스로 제작돼 비거리 부분에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반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플렉스 포인트를 최적화된 페이스 중심으로 중량을 집중하여 반발력이 배가된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나 엘보 등으로 부상당한 골퍼, 여성골퍼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모델이다.

HISKE 전용샤프트 장착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HISKE" 전용샤프트 장착으로 휘어짐의 강도를 최소화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폭발적인 비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에너지 전달율이 뛰어나고, 뒤튐림이 적어 방향성 제어 가 쉬운 V10 전용샤프트는 높은 반발계수 헤드를 완벽하게 보조해 준다 하겠다.

100점 한정 할인판매 실시 깊고 낮은 무게중심으로 최적의 스핀량을 만들고 유선형의 공기역학적 설계로 스윙시 공기마찰을 최소화해 방향성과 비거리 향상에 최적인 "V10"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는 "V10" 드라이버를 100점 한정판매로 소비자가 69만원에 세일가 39만원에 100점 한정판매로 판매 실시한다. A/S는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한다. 이번 기회에 나만의 비발명기 하나 구입하는 게 좋을 듯하다.

로프트(°)	9.5	10.5	12
헤드크기	460cc		490cc
라미아	SR	R	L
샬로우 페이스	DI	DO	C3
페이스각	H1	H1	H1
전체중량(g)	292	284	284
(inch)	45		44

2015신제품 100% 일본 제조

정가 69만원
100점 한정
특가 39만원

입금계좌 (농협) 302-0851-6991-11
예금주 김주기(원프로톤)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544-2749